광주 생산 기아 군용차, 방산 전시회서 성능·품질 입증

'서울 ADEX 2025'서 픽업트럭 타스만 군용 지휘차 최초 공개 오프로드 성능·군 작전 운용능력 강화 등 다양한 맞춤 제작 강점

기아 오토랜드 광주 하남공장에서 생산하는 군용 차가 국내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위상을 뽐내고 있다.

20일 기아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고양 킨 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5' 비즈니스 데 이에 참여해 하남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세대 중형표 준차와 소형전술차 등 다양한 군용 차량을 공개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서울 ADEX 2025'는 전세계 35개국·600여개 업체가 참가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관련 첨단 기술·장비 등을 선보이는 국내최대 규모 방산전시회다.

지난 6월 기아가 선보인 차세대 중형표준차는 수심 1 m 하천 도하, 60% 종경사·40% 횡경사 주행, 전자파 차단 설계, 영하 32도 시동, 최대 병력 25명 또는 화물 10 t 수송 등 우수한 험지 주행 능력을 발휘한다.

소형전술차는 장소 제한 없이 위험 지역을 감시

하는 '인공지능 경계차' 등 군의 사용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됐다. 소형전술차는 기동성과 활용 성을 인정받아 한국군을 비롯해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등 전세계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최 근에는 폴란드 군의 신형 표준 차량으로 선정되기 도 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 생산 군용차의 성능과 품질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는 이 밖에도 화물 적재가 가능한 4인승 카고, 정찰 능력 확대를 지원하는 드론 탑재차 등도 정시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아 타스만 군용 지휘차 실물도 최초 공개된다. 타스만 군용 지휘차는 기아 최초 정통 픽업트럭 타스만 특유의 오프로드 성능과 안전·편의 사양을 기반으로 무전기와 안테나 등을 장착해 작전 운용 능력을 강화한 차량이다. 지난달 한국군의 표준 지휘용 픽업으로 선정돼 연내에 실전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5 전시관에 기아 오토랜드광주 하남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전술차(맨 오른쪽) 등이 전시돼 있다.

〈기아 제공〉

기아는 프레임과 엔진 등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한 타스만 및 중형표준차 베어샤 시, 타스만 특수목적 파생차량 5종(작전지휘 차 량, 카고 2종, 유조차, 냉동·냉장 부식차), 중형표

준차에 방탄 패널을 부착한 중형전술차, 25 t 이상 의 화물 적재가 가능하도록 신규 개발 중인 대형표 준차 모형도 함께 전시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ADEX에서 군의 안전한 이

동을 돕는 다양한 특수차량을 선보인다"며 "앞으로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 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 '더 뉴 아반떼 N TCR', TCR 월드투어 한국 레이스 우승

현대자동차는 "지난 17~19일 강원도 인제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2025 TCR 월드투어' 제6라 운드에서 현대차 '더 뉴 엘란트라 N TCR (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20 일 밝혔다.

TCR 월드투어 경기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더 뉴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의 미켈 아즈코나 선수는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켈 아즈코나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서 총 58포 인트를 획득하며 2025시즌 드라이버 9위에 올랐 다. 노버트 미첼리즈 선수는 5위, 네스토르 지로라 미 선수는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BRC 현 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은 올해 6번의 라운드에 서 총 4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TCR 월드투어 한국 경기에서 우승을 달성해 한국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해나기자 khn@kwangju.co.kr



미켈 아즈코나 선수가 지난 17~19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2025 TCR 월드투어' 6라운드한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AI 교통안전 시대 연다

이사장 직속 'AI 미래전략실' 가동 서비스 발굴·AI 정책 추진 등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 검사부터 도로·항공·철도를 아우르는 인공지능(AI) 적용을 통해 'AI 기반 교통안전 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TS는 '공공부문 AI 대전환' 국정과제에 발맞춰지난 13일부로 'AI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했다. 이사장 직속 미래전략실을 'AI 미래전략실'로, 기존 디지털전략실을 'AI 디지털실'로 각각 확대·개편하고 AI 디지털실 산하에 'AI 혁신처'를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상태다.

AI 미래전략실은 AI 활용 서비스 발굴, AI 관련 제도·지침·윤리 기준 관리, AI 정책 자문기구운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TS의 AI 대전환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진행한다.

AI 디지털실은 AI 기반 서비스 구축 지원·성과 관리, AI 공통플랫폼 구축, AI 모델 고도화·품질 관리 등을 통해 AI 기반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 을 높일 예정이다.

TS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AI 공통 플랫폼 구축 용역'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AI와 디지털기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고를 예측·예방하는 'AI 교통안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자동차 검사 및 구조 변경,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사업장 안전관리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TS는 자동차검사부터 도로, 항공, 철도를 아우르는 AI 기반 경영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AI 혁신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네시스, GV70 연식변경 모델 출시

소음•진동 불편 줄여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중형 스포츠유 틸리티차(SUV) GV70의 연식변경 모델 '2026 GV70'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6 GV70는 소음·진동·불편감(NVH) 성능을

강화하고 패키지 구성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언더커버 흡음재를 더하고 2.5 터보 모델에는 엔진 진동 전달을 줄여주는 '엔진 서포트 댐퍼'를 추가해 NVH 성능을 끌어 올렸다.

제네시스는 기존 GV70 가솔린 2.5 터보 19인 치 휠 모델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했던 전자식 차 동제한 장치(e-LSD)를 선택 사양으로 변경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밖에 '파퓰러 패키지 I', '파퓰러 패키지 II',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구성도 최적화됐다.

2026 GV70에는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신규 외장 색상 '베링 블루'가 추가됐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취향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GV70의 상품성을 다듬었다"고 말했다. /김해나기자 khn@

GM, LMR 배터리로 북미 배터리 혁신상

제너럴모터스(GM)는 "'제15회 배터리쇼 북미 2025'에서 올해의 배터리 혁신상을 받았다"고 20 의 밝혔다

GM이 LG에너지솔루션과 공동 개발한 리튬망 간리치(LMR) 배터리는 양극재에서 가격이 비싼 광물인 코발트와 니켈을 저렴한 망간으로 대체해 원가를 낮춘 제품이다. 긴 주행거리와 적은 비용 을 구현하는 차세대 소재로 평가받는다. GM 자체 연구에 따르면 북미 EV(전기차) 트 럭을 기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최대 약 350마일(563km)을 달리는 반면 LMR로는 400마 일(644km)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GM은 배터리 셀 제조, 원자재 확보, 기술 내재화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2028년까지 세계 첫 상용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